

교과서의 베스트셀러 신화를 만든 “(주) 지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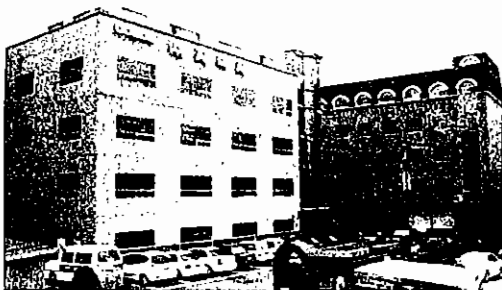
권 병 일 | (주)지학사 대표이사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춘추 시대 중국의 위대한 스승이자 철학자였던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論語)」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子曰, “吳는 十有五而志于學하고 三十而立하고 四十而不惑하고 五十而知天命하고 六十而耳順하고 七十而從心所欲하되 不踰矩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열다섯 살에 배움에 뜻을 두었고, 서른 살에 목표를 세웠고, 마흔 살에 미혹됨에 빠지지 않았고, 쉰 살에 하늘의 은갓 이치를 알았고, 예순 살에 귀가 트였고, 일흔 살에 마음으로부터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일정한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즉, ‘학문에 뜻을 둔 10대 중반 전후의 젊은이들에게 참된 지식과 교양을 전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곳’이 바로 이 곳 (주)지학사이다.



▲(주)지학사 사옥(서울특별시 동교동에 위치)

첫 브랜드 ‘하이라이트’의 대히트로 사업 기반 다져

1965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의 자그마한 사무실에서 5명의 사원으로 시작한 (주)지학사는 ‘하이라이트’라는 브랜드의 히트를 기반으로 ‘교과서, 참고서, 월간지, 학습지, 교양 도서, 인쇄·제본 사업’으로의 놀랄 만한 성장을 기록하여 현재 300여 명의 사원을 거느리는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8월 26일자로 창립 35년을 맞이한 (주)지학사(www.jihak.co.kr)는 교육 문화의 가치 창조를 통하여 미래 인재 육성에 공헌하는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 고객 지향, 인간 존중, 책임 경영, 가치 창조의 경영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오늘의 출판계가 도매 서점들의 난립, 유통 구조의 불합리와 낙후성 등 출판계 자체 문제의 누적

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게 된 현재, (주)지학사는 오히려 2001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제 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합격 및 참고서 등의 신개발 작업으로 위치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사훈
清 潔
創 意
勤 儉
人 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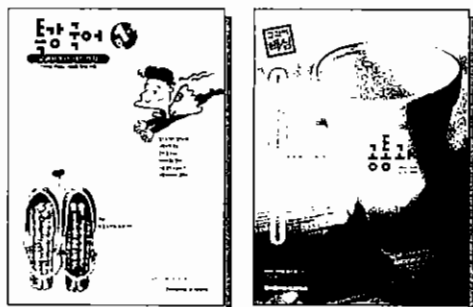
교과서의 베스트셀러 신화를 만들어

기업 창립과 동시에 추진된 교과서 사업은 지학사의 모든 출판 사업의 뿌리가 되고 있으며, 이 땅의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제 6차 교육 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총 67종(초·중·고)이 합격되어 학습지 발행 출판사 업계 중 합격률 1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전국의 각 고교에 공급된 교과서 숫자를 집계한 결과, 공통수학(1위)과 공통과학(2위)이 베스트셀러로 선정(1998. 7. 4 조선일보)됨에 따라 대한민국 최고의 교과서 전문 출판사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 6차 합격 교과서들

100만부 생신을 돌파한 '특강' 과 '핵심'



▲ 학생 2명당 1명꼴로 소지하는 '특강' 과 '핵심'

교과서 개발의 역량을 밑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의 교재 개발에 전념한 결과 2000년 현재 300여 종 1,800만부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100만부가 넘는 부수를 자랑하는 '특강' 과 '핵심'은 학생 2명당 1명꼴로 소지하고 있는 진기록을 세웠다.

청소년 독서 문화의 선두 주자 '독서평설'

(주)지학사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독서 교육 프로그램과, 논술 학습 프로그램, 사고력 향상 프로그램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월간지 「고교 독서평설」과 「중학 독서평설」의 발행을 통해 청소년의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9년 7월 100회를 맞이한 「고교 독서평설」을 기념하여 동아일보사의 후원으로 전국 독서 감상문 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교육 문화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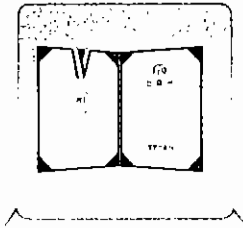


▲ 전국 독서 감상문 대회 시상식(동아일보사 후원)

입시를 꿰뚫어 보는 회원제 학습지 (X-ray)

다양해진 입시 제도와 모의고사 폐지에 따른 학생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수능을 꿰뚫어 보는 학습지 (X-ray)가 1995년 창간되어 현재 연간 회원 10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 기본 학습 교재

이외에 모의고사, 상담, 입시 정보 등의 제공으로 1997년 한겨레와 한국일보의 히트 상품으로 선정되었고, 1999년에는 경향신문의 히트 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교과서, 참고서 이외의 학습지 시장에서도 (주)지학사는 전문 출판사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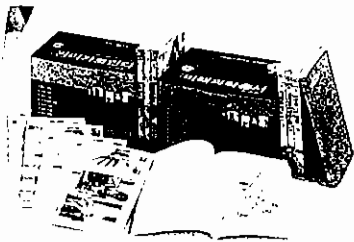


▲경향신문 '99히트 상품으로 선정

교양 도서 발행

(주)지학사는 해마다 다양한 교양 도서를 발행하여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양 함양과 인간성 향상을 위한 유익한 자료를 개발하여 올바른 독서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잘알기총서(12권)」, 「미래과학총서(12권)」, 「원리가 보인다(10권)」, 「한국대표명작총서(18권)」 등의 수많은 작품들이 각종 추천 도서로 선정되어 학교



▲한국과학문화재단과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추천 도서로 선정된 「원리가 보인다」와 「미래과학총서」

현장 교육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인쇄·제본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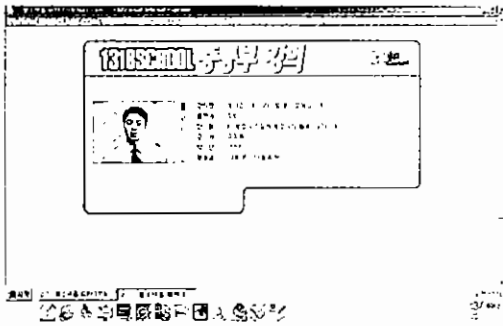
1992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창립된 인쇄 공장 (주)벽호문화사는 운전기 3대와 무선철 온라인 2조로 시작하여 현재 약 4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원활한 유통 구조 혁신을 위하여 경기도 파주에 약 1만여 평에 이르는 '(주)지학사 물류센터'가 지난 8월에 완공되어 인쇄에서 제본에 이르기까지 각종 도서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량 생산해 내고 있다.



▲ 1만여 평에 이르는 (주)지학사 물류 센터

OFF 라인 학습에서 ON 라인 학습으로

21세기는 세계화, 다원화된 사회 구조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지향한다. 이에 (주)지학사는 OFF 라인 학습 교재 부문에서의 선두는 물론 인터넷 강의, 인터넷 평가 사업 등 ON 라인 학습으로의 폭넓은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업체와 업무를 제휴하여 첨단 신지식 교육 정보 서비스 기업으로의 새로운 탈바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 강의(제휴 업체 : www.1318class.com)



▲인터넷 모의고사 평가(제휴 업체 : www.xer.co.kr)

지금은 '질'이 '양'을 좌우하는 시대

지난 1998년 IMF한파로 인해 출판사와 서점들이 잇달아 부도를 내는 등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출판사 및 도매 서점들의 난립, 유통 구조의 불합리와 낙후성 등 출판계 자체의 문제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말로는 고급 지식 산업임을 내세우면서도 한탕 위주 상업주의가 팽배했고, 종이 공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저렴한 출판물이 양산되었던 것

이 사실이다. (주)지학사는 이런 거품 현상부터 걸어내고, 낙후된 관행과 왜곡된 유통 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의식과 행동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 경쟁의 시장 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지학사는 결코 오늘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는다. '양(GNP, 소득...)'으로 '질'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질'이 '양'까지 좌우하는 현 시대에 (주)지학사는 우수한 인재들이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최고의 품질과 기업 이미지를 지닌 초우량 교육 문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고 있다.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과 그 제도는 당사회의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인력 양성과 그 체계이다.

즉, 미래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지식과 정보에 있고, 미래의 인재상 역시 지식과 정보에 있는 만큼, (주)지학사는 자신의 사업을 통하여 미래 인재 육성에 공헌함을 기업의 사명으로 한다.

「열린 교육」에 이어 김대중 신 정부의 교육 분야에서의 「능력 중심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교육 시책에 발맞추어 (주)지학사는 교육 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세계화에 걸맞은 신 사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통해 교육 선진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